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 학습지침

Romans VI, 프란치스칸 정의평화 창조질서 보전위원회

옮김: 한국재속프란치스코회 (OFS Kore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찬미받으소서”의 학습지침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교황성하의 회칙발간에 즈음하여 저희들, “프란치스칸 정의평화 창조질서 보전위원회”는 프란치스칸 가족협의회 (CFF)로 부터 교황님의 회칙을 맞을 준비를 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들은 회칙의 이해와 공부를 돕기 위한 학습지침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고 CFF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 학습지침은 프란치스칸 가족들과, 또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특별히 제공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단지 이 회칙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교황직 또한 아씨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초기 편지에서 교황님이 말씀 하십니다: “저에게 프란치스코 성인은 기쁘게 그리고 진정으로 약한 이들과 생태계를 위해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에서 이 메시지를 구현하도록 요청 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 그리고 이 지구의 절규를 분명히 들으며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델을 따르는 삶으로 부름 받고 있습니다.

이 학습지침은 이를 통해 도움 받는 모든 선한 이들에게 바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찬미받으소서”에서 우리시대의 시급한 위기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이들이 각 계층에서 대화를 하도록 반복해서 요구하십니다. 교황님의 끈질긴 간청에 우리가 함께 응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학습지침을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학습지침은 회칙과 함께 사용합니다. 이 지침의 의도는 이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그룹이 교황님의 글을 직접 읽도록 격려하는데 에 있습니다. 그러

므로 이 학습에 참여하는 이는 이 지침과 함께 회칙 (사본)이 필요합니다.

- 학습지침은 일곱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1과는 도입부분이고 나머지 제2과에서 제7과까지 모두 여섯과는 각각 회칙의 여섯 장 (six chapters)에 부합합니다. 모두 아홉 번의 모임을 갖습니다. 첫 모임은 전체적인 도입을 위해, 일곱 번의 모임은 학습지침의 일곱과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모임은 학습체험의 평가를 위한 스케줄입니다.
- 전체 프로그램의 리더와 각 모임의 리더를 선택합니다. 리더는 모임 전 참석자들에게 회칙의 적절한 부분을 읽도록 주지시키며 모임이 잘 진행되도록 하고 모든 참석자들이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 매번 모임은 간단한 회상, 기도, 성찰로 시작합니다. 이 그룹이 왜 모였는지? 어떤 결과를 추구하는지? 이어서 학습지침에서 그날 주제의 요약을 천천히 읽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회칙의 관련된 부분 전체를 검토합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시 요약으로 돌아가 계속합니다.
- 요약의 검토 후, 성찰을 위한 질문에 답합니다. 가능한 한, 질문의 답은 구체적으로 합니다. 참석자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룹은 함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좀 더 큰 공동체에는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전 세계적인 위기의 극복을 위한 큰 움직임의 불꽃을 지피기 위해 지역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칙에 있는 제안들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계속해서 숙고하십시오.
- 제8과까지를 끝낸 후 평가와 축하 모임을 계획하십시오. 그룹이 성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과정에 다른 이들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이 그룹에 참여했던 이들이 새 그룹을 형성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학습지침이 교황님의 새 회칙을 읽고 공부하도록 여러분들을, 특히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을 실행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분들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침들은 문화적인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프란치스칸 가족은 그 지역에 더 적합한 학습지침을 준비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습지침이 엘리트 문서가 되지 않고 모든 이들이 읽고 이해하며 “찬미받으소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말씀들을 살아 내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학습지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이 학습지침이 새 회칙의 메시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그리고 복음을 살기위해 꼭 필요한 지속적인 대화의 과정을 장려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Romans 4 회원들.

도입

요약:

교황님의 회칙 부제 “찬미받으소서”는 회칙의 주 관심사를 명확하게 합니다.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우리의 공동의 집이 우리가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 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1항). “이 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마음대로 약탈할 권리가 부여된 주인과 소유주를 자처하기에 이르렀습니다.”(2항)

이제 환경 악화에 당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공동의 집에 관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3항). 교황님은 과거 이 문제들에 관해 경고를 한 전임 교황님들을 언급하시며 그들의 우려가 많은 과학자들, 철학자들, 신학자들과 시민단체들, 타 교회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들, 타종교인들의 숙고에 의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 하십니다(3-9항).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과 사목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시며 성인을 “취약한 이들을 돌보고 통합 생태론을 기쁘고 참되게 실천한 가장 훌륭한 모범”이라고 칭하시며 회칙의 기본 주제들 중 하나인 사회정의와 환경보호의 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연 보호,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의, 사회적 헌신, 내적 평화가 어떠한 불가분의 유대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씀 하십니다(10항). 주지해야 할 것은 우리가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자연과 환경에 접근하면서 경탄과 경이에 열려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즉각적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지배자, 소비자, 무자비한 착취자의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11항)

교황님은 분명한 어조로 호소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의 집을 보호해야 하는 긴급한 과제에는 모든 인류 가족을 함께 모아 지속 가능하고 온전한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13항) 그리고 이는 “우리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건설한 것인지에 관하여 새롭게 대화를 나눌 것을”(14항) 요구합니다. 교황님은 이 호소에 수반되는 어려움들, 즉 힘 있는 자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들의 관심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 인식하고 계십니다. “신자들 가운데서조차도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문제 자체의 부인과 무관심, 냉정한 체념이나 기술적 해결에 대한 맹목적 확신이 있습니다. 새로운 보편적 연대가 필요합니다”(14항)

도입부분은 회칙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정주제들의 목록으로 마무리 되어 회칙의 종합적인 메시지를 정리하여 이해를 돕도록 합니다. “가난한 이들과 지구의 취약함의 긴밀한 관계,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기술에서 나오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힘에 대한 비판, 경제의 발전에 대한 다른 이해 방식을 찾으라는 요청, 모든 피조물의 고유한 가치, 생태계의 인간적 의미, 숨김없는 솔직한 토론의 필요성,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중대한 책임, 버리는 문화의 새로운 생활양식의 제안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16항)

성찰을 위한 질문들:

1. 회칙의 이름 “찬미받으소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강조합니다. 가장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는 성인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2.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환경의 악화와 사회적 불의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그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십니다. 이 연결 관계를 어떻게 경험해 보셨는지요? 교황님이 모두에게 요청하고 계신 대화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요?
3. 위의 문단에 열거된 주제들을 다시 살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요약:

회칙의 제1장은 시대의 징표들을 알아차리는 데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집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현실을 직시” 해야 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씀 하십니다(61항). 이 상황에 대해 또 이의 해결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의 다른 견해들을 존중해주는 전문가들 간의 솔직한 토론만이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교황님은 선언 하십니다(61항). 회칙은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한 여섯 분야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공해와 기후변화를 다루는 것입니다(20-26항).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들이 광범위하게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기술은 이러한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20항). 해마다 수십억 톤의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쓰레기들은 대부분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고 맹독성과 방사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집인 지구가 점점 더 엄청난 쓰레기더미처럼 보이기 시작 합니다(21항).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버리는 문화, 소외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모든 것을 쓰레기로 축소시키고 있는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합니다(22항). 기후변화에 관하여 교황님은 현재 기후 체계의 심상치 않은 온난화를 보여주는 매우 확실한 과학적 견해들이 있다고 명시하십니다.

여러 다른 요소들도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최근 수십 년간의 지구 온난화가 대부분 인간활동의 결과이며 화석 연료의 엄청난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 방식 때문에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부분 가난한 이들은 온난화와 관련된 현상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자연 훼손으로 악화된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이주민들의 비극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요구되는 것은 생활방식, 생산과 소비방식을 바꾸는 것이며 이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들을 장려하는 것입니다(23-26항).

두 번째 분야는 물의 문제입니다(27-31항). 깨끗한 식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인간의 삶 그리고 육상과 수생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가난한 이들의 경우 특별히 심각하여 수인성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28-29항). 회칙은 안전

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30항).

세 번째 분야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입니다(32-42항). 인간에 의한 동식물의 종의 소멸은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합니다. 이 손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는 생물의 종들을 사라지게 합니다(32-33항).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42항).

네 번째 분야는 인간 삶의 질의 저하와 사회 붕괴입니다(43-47항). 우리는 환경 훼손, 기존의 개발 방식, 버리는 문화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합니다(43항). 이러한 것들은 지난 두 세기의 성장이 언제나 온전한 발전을 이끌지 못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46항).

다섯 번째 분야는 세계적 불평등입니다(48-52항). “환경과 사회의 훼손은 특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이 세상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소외된 이들은 인류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부가적으로, 거의 마지못해서 또는 피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48-49항). 회칙은 강조합니다: “참된 생태론적 접근은 언제나 사회적 접근이 됩니다. 그러한 접근의 정의의 문제를 환경에 관한 논의에 결부시켜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49항). 출생률에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의 지나친 선택적 소비주의”에 맞서야 합니다(50항).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기후 변화에 관하여 차등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52항).

끝으로, 제1장은 환경 훼손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미약한 반응을 지적합니다(53-59항). 우리의 공동의 집을 지난 200년 동안처럼 아프게 하고 잘못 다룬 적이 일찌기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에 대처할 적당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정책들이 기술과 경제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53-54항). “사회 안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키려고 단체들이 기울이는 참다운 노력은 낭만적인 환상에 근거한 골칫거리나 회피해야 할 결

림돌로 여겨지게 됩니다.”(54항) 우리는 “자기만족과 경박한 무책임을 부추기는 거짓되거나 피상적인 생태론”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59항). 현재의 위기에 대면하여 과감한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들:

1.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가 심각하게 황폐되어가고 있다는 교황님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2. 최근 지구 온난화의 원인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황님은 지구온난화의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나 주된 원인은 인간의 활동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후변화의 원인들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개인, 공동체, 또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 회칙은 환경 위기가 가난한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그리고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생태적 접근은 사회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모든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또한 기후변화에 관해 차등적 책임이 지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접근 방식이 우리의 생활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4. 환경 위기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제1장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제2장: 피조물에 관한 복음 — 교황님의 프란치스코 시각

요약:

“찬미받으소서” 회칙의 제2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세상과 인류를 병들게 하는 여러 병폐들로부터 벗어나 신앙과 성경에 근거한 치유 방법으로 눈을 돌리십니다. 교황님은 과학과 종교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파괴한 모든 것을 바로잡게 하는 생태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어떠한 학문 분야나 지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와 그 고유 언어도 포함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철학적 사상과 나누는 대화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앙과 이성의 다양한 종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63항)

인류는 하느님의 창조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65항). 우리

는 하느님과 관계, 서로와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안에 살도록 되어있습니다. 죄, 특히 우리 자신 역시 피조물들이라는 것을 잊고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저지르는 죄는 이 관계들을 깨뜨리게 됩니다(66항). 그러므로 땅과 하느님의 피조물들을 “지배”하여(창세 1,28) 피조물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해도 정당하다는 생각 대신 우리는 책임을 지며 돌보는 이들이 되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67-69항).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모든 것은 서로 관계를 맺었다”는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상기 시키십니다(70항). 단 한사람의 의로운 이가 희망을 되찾아 놓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휴식에는 지혜가 있습니다(71항). 피조물에 대한 묵상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구원의 사랑에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더욱 더 의로움을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72-74항).

교황님은 (인간이 연구하고 이해하며 통제하는 체계인) 자연과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손을 내미시어 주신 선물로, 우리가 함께 보편적 친교를 이루도록 요청하는, 사랑으로 비추어진 실재로서의) 창조를 구별하십니다(76항). “하느님 사랑의 질서”로서의(77항) 창조는 발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발전은 성령님의 지속적인 이끄심과 인간의 협력, 그리고 인간이 각종 과학 분야에서 분명히 보여준 창의력과 독창성을 요구 합니다(78-81항). 관계 속에 살고 있으며 공동창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주체들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다른 생명체들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면하는 주체들로 대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경고하십니다: “자연을 단지 이윤과 이익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이는 사회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합니다.”(82항) 우주의 목적과 종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계 여정의 목적은 하느님의 충만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충만은 모든 보편적 성숙의 중심이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성과 사랑이 부여된 인간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이끌려 모든 피조물을 그들의 창조주께 인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83항)

이는 지극히 프란치스칸적인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다음 단락들에서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모든 창조물은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목적이 있으며

하느님의 선하심과 너그러우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은 상호 의존하고 있으며 하느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내기에 스스로는 불충분하지만 각자 특정한 방법으로 하느님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84-88항). 이러한 접근은 이 회칙의 영감이 된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양의 찬가”(87항) 아름답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인간의 “뛰어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종종 “인간들 사이의 동등한 존엄을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인간 이외의 생물 종 보호를 위한 투쟁에 더 나서는”(90항) 것을 목격합니다. “인간에 대한 온유, 연민, 배려의 마음이 없다면 자연의 다른 피조물과도 깊은 친교를 올바로 느낄 수 없습니다.”(91항) 고통 받는 형제자매들을 못 본채하며 자연세계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관심사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친교에 마음을 열면, 이러한 형제애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잔혹함은 언제나 어느 모로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92항)

지구와 지구가 제공하는 모든 재화가 “공동 유산”이므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모든 사유 재산에 대한 사회적 부채가 있다”는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의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십니다(93항). 자연 환경은 “공공재산”이며 모든 이의 책임입니다(95항).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를 따라 이 책임을 집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다른 이들에게 권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셨고,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하시며 인간의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96-98항). 예수님처럼 살고 일하라는 부르심을 영예와 책임감으로 인식하며 우리는 용기를 갖고 당면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들:

1.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신을 주위의 사람들과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보편적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이로, 시민으로, 노동자로, 또 소비자로서 어떻게 하면 삶에서 더욱 더 조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2. 교황님이 하셨듯이 “자연”과 “창조물”의 구별이 도움이 되는지요?

3. 이 회칙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양의 찬가”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4. 피조물로서 인간의 “뛰어남”을 고려할 때, (창세기 1,28이하)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첫 인간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명령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3장: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

요약: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 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 세대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교황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신 것은 지배적인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과 이 패러다임이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교황님은 우리가 생태 위기의 원인들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공유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 고려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교황님은 원칙과 행동을 아우르는 윤리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화할 것과 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몇몇 분야들을 제안하십니다.

첫째, 인류는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갈림길에 도달했습니다. 의학, 공학, 통신 등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질은 개선되었고 이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처참한 결과도 초래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특히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지식과 경제적 재원이 있는 이들에게는 힘이 증진되었습니다. (교황님은 핵폭탄의 사용, 독재정권들이 사용하는 일련의 기술들을 인용하십니다). 사람들은 힘이 늘수록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책임과 가치관과 양심의 발전이 함께해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다. 이 상황은 건전한 한계를 정하고 자제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건전한 윤리와 문화와 영성을 요구합니다(102-105항).

둘째는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의 세계화에 대한 고려입니다. 기술의 산물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기술의 산물은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는 특정 권력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기회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무한 성장 또는 제약 없는 성장이라는 무한

정하고 무제한적인 성장의 개념을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구의 산물은 무한정하다는 거짓에 근거한 것입니다(106항). 세계적인 굶주림과 빈곤은 단순한 시장경제의 성장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낭비적인 소비주의와 비인간적인 궁핍은 용납할 수 없는 극과 극의 대비를 제공합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현재의 실패의 근본 원인을 기술과 경제 성장의 방향, 목적의 의미와 이들이 주는 사회적인 암시에 있다고 보십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축적하기 위한 바동거림은 우리를 피상적인 삶으로 이끄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106-114항).

세 번째 분야는 현대 인간 중심주의의 위기와 영향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우리는 원래의 좋은 목적을 존중하며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관리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 서로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현실에서 가난한 이가 지닌 가치를 인식하지 못할 때 자연의 울부짖음 자체에도 귀를 기울이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환경과, 서로 간에, 또한 하느님과 맺는 관계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근세의 그릇된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론을 요구 하십니다(115-121항). 교황님은 선언하십니다. “인간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자연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인간학 없이는 생태론도 있을 수 없습니다.”(118항) 세상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인간은 우선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황님은 이어서 우리의 풍요로운 그리스도교 전통이 다음의 세 가지 상황과의 유익한 대화의 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 하십니다:

1. 실천적 상대주의. 당장 유익한 것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경 악화와 사회의 부패를 가져오고 “쓰고 버리는” 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인신매매, 조직범죄, 마약 매매, 불법 다이아몬드 매매, 장기 매매, 유아 유기, 멸종위기 동물의 털사용 등의 예를 인용하십니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정치적인 조치나 법의 힘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서는 안됩니다. 문화 자체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122-123항).
2. 고용 보호의 필요성. 창세기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보전하고 열매를 맺도록 에덴동산이 주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예를 통해 인간이 다른 존재와 맺는 관계 안에서 이해되는 노동이 인간 활동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십니다. 이 개념과 함께 하는 것이 아씨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피조물에 대한 관상적 찬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은 우리 인간이 관상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잃으면 노동의 의미를 왜곡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단언하십니다. 노동은 이렇게 개인의 다양한 성장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창의력, 미래 설계, 재능 개발, 경배와 같은 삶의 여러 측면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은 목상과 노동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은 임시방편이 될 뿐입니다. 그들은 노동을 통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황님은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한 결과,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고 지적하십니다. 일자리 창출은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 이유로 인하여 “생산의 다각화와 기업의 창의력을 고무하는 경제의 증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 당국은 군소 생산업자들과 그들이 생산하는 품종의 다양성을 투명하고 확실하게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124-129)

3. 새로운 생명 공학.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인간생명에 필요할 때에 인간이 동식물계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에 대하여 일반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광범위하고 책임 있는 과학적 사회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가능한 정보를 고려하고 직간접적으로 어느 모로든 관련된 모든 이를 포함한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리를 배제한 기술은 자기 힘을 스스로 통제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130-136항).

성찰을 위한 질문들:

1. 세계적 공동체의 회원으로서 당신이 생각하는 만족한 삶이 발전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축적할 필요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까?
2. 생태 위기의 근본 원인들에 대해 다른 이들과의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성찰할 때, 유익한 대화를 통해 필요한 변화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 그리스도교 신앙이 어떠한 기여를 합니까? 또는, 만일 당신이 이를 위한 충분한 기초가 없다면 어떻게 이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3.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인간학에 대해 우려를 표하십니다. “올바른 인간학 없이는 생태학도 있을 수 없다”는 교황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4. 기술적인 발전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장비를 개선할 수 있는 선택 기능

이 없어서 새 장비를 구입해야 할 때 “쓰고 버리는 문화”에 자신이 붙잡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 딜레마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시나요?

5.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목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시며 노동의 몇가지 특성들을 묘사하십니다. 노동을 통해 목상과 활동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했습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 이러한 가치들을 어떤 방법으로 권장할 수 있습니까?
6.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제품이 어떻게 개발 되었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합니까? 그 개발 과정이 인간의 고용을 존중하고 또 동식물 본래의 특성들을 존중합니까?

제4장: 통합 생태론

요약:

이 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인간적 사회적인 차원을 분명히 존중하는 생태론으로 **통합 생태론**을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137항). 교황님은 이어서 환경, 경제, 사회의 생태론, 문화 생태론, 끝으로 일상생활의 생태론 등 다양한 생태론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이 장은 두가지의 중요한 원칙-공동선의 원리와 세대 간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마칩니다. 각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경제, 사회의 생태론. 생태론의 이들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 숙고하시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모든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과 “사회적 삶과 존속의 조건들의 측면, 또한 발전, 생산, 소비의 모형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솔직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 하십니다(138항). 복합적인 위기에 당면하여 교황님은 통합적인 접근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환경 위기와 사회 위기라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에 당면한 것입니다. 그 해결책을 위한 전략에는 빈곤 퇴치와 소외된 이들의 존엄 회복과 동시에 자연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됩니다.”(139항) 연구자들이 폭넓은 학문적 자유를 누리도록 도와서 생태계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는지 이해하여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140항). 경제 성장의 개념은 문제점들에 대한 제한된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 때문에 현실을 더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경제 생태론이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좀 더 통합적인 시각을 위하여 경제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인

본주의가 필요 합니다(141항). 나아가, 모든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사회 제도의 건전함도 환경과 인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취약한 제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142항).

문화 생태론. 자연유산과 마찬가지로 역사, 예술, 문화의 유산도 위협받고 있다고 교황님은 지적 하십니다(143항). 이 위협은 우리가 지역 문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소비주의적 관점은 문화의 평준화를 가져옵니다. 소비주의적 관점은 모든 문제들을 획일화된 규제나 기술적인 개입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지역적 문제들의 복잡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습니다(144항). 문화의 맥락 안에서 교황님은 토착공동체들의 문화 전통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들은 단지 여러 소수 집단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주요 이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십니다. 특히 그들이 사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때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농업, 광업 개발 계획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땅을 내어주고 떠나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146항).

일상생활의 생태론. 여기에서 교황님은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에 대해 논의하십니다. 교황님은 환경의 제한적인 상황에 너그름과 창의력으로 대응한 이들을 칭찬하시며 그러나 극심한 빈곤은 삶의 질에 엄청난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십니다. 주택 부족, 범죄, 대도시의 인구 밀집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언급 하십니다(148-149항, 152항). 교황님은 도시 생활을 변모시킨 사례들을 언급하시며 이들이 우리의 공동의 집을 위한 새로운 비전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씀 하십니다(147-153항). 그러나 도시 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처지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에는 “기본적인 공공시설이 부족하고 좀 더 존엄한 삶의 권리나 희망 없이 노예의 처지로 추락하는 노동자들이 존재 합니다.”(154항) 이 부분은 인간의 삶과 우리 본성에 새겨진 도덕률이 맺는 관계, 즉 더 존엄한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마무리 됩니다(155항).

공동선의 원리. 교황님은 공동선을 사회 윤리에서 핵심적이고 통합적인 원칙이며 인간 존중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 하십니다(156-157항). 사회 전체, 특히 국가는 가장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보여주며 공동선을 수호하고 증진 할 것입니다(157-158항).

세대 간 정의. 교황님은 공동선의 개념을 미래세대로 확장하여 세대 간의 연대를 정의하십니다. “세대 간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지구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속하기 때문입니다.” (159항) 우리 자신의 존엄이 위기에 빠져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황님은 말씀 하십니다: “소비, 낭비, 환경 변화의 속도는 지구의 한계를 넘어 섰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생활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이미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161항) 현재의 위기는 매우 구체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현재 불균형”의 영향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최악의 결과를 감수하게 될 이들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책임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합니다(161항).

성찰을 위한 질문들:

1. 통합생태론은 환경 문제들과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연결하여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연결 고리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2. 교황님은 인간의 소비주의적 시각에 대해 말씀하시며 소비와 낭비, 그리고 환경 변화가 지구의 한계를 넘어서서 재앙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 하십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 세상에서 말하는 공동선의 보편성과 복음에 근거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선택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4.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세대 간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정의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확인하십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장래를 물려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5장: 접근법과 행동 방식

요약:

지구가 처한 현실과 인간이 초래한 심각한 환경 훼손의 원인들을 살펴본 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제5장에서 “우리가 점점 빠져들고 있는 자멸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는” 주요한 방법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십니

다(163항). 환경 문제에 대한 교황님의 접근 방법은: 환경에 관한 국제 사회의 대화; 새로운 국가적 지역적 정책을 위한 대화; 정책 결정 과정의 대화와 투명성; 인간 성취를 위한 정치와 경제의 대화; 과학과 종교의 대화들을 포함한 일련의 대화의 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환경에 관한 국제 사회의 대화. 우리의 지구가 고향이며 인류는 공동의 집에 사는 한 민족이라고 확신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164항). 이는 세상과 인류를 위해 공동 계획의 수립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비록 일부 진전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 위기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은 아직도 부족합니다(165-170항). 교황님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책임이 차등적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현 상황은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 하십니다 (170항). 시행 가능한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국제적 규제의 표준이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막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 공동체” 전체를 다루는 통치 제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173-174항).

새로운 국가적 지역적 정책을 위한 대화. 국제적인 관심사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역 내부에도 승자와 패자가 존재 합니다(176항). 정부는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단기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즉각적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178항) 장기적인 목적을 수립하여 공동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환경과 소규모 생산자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179-181항). 그러나 교황님은 “정치적 결정에는 국민들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이 장기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제안을 하십니다(179항).

정책 결정 과정의 대화와 투명성. 이 부분에서 교황님은 부패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부패는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정치적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182항). 환경영향 평가는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압력에서도 투명하고 자유롭게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183항). 교황님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 특히 지역주민들 간에 대화를 요구하시며 온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제기되어야 하는 일련의 질문들을 제안 하십니다(183-185항). 또한 환경 피해의 예방 원칙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 하십니다(186-187항). 또한 객관적 정보를 통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예측된다면,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모든 관련 계획은 중단되거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입증의 책임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계획이 환경과 그곳 주민에게 그 어떤 심각한 피해도 입히지 않는다는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186항)

인간 성취를 위한 정치와 경제의 대화. “정치가 경제에 종속되거나, 경제가 효율 중심의 기술관료적 패러다임에 종속되지 말아야 합니다.”(189항) 정치와 경제는 반드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삶, 특히 인간의 삶에 봉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환경 보호는 오로지 금전적인 손익 계산을 바탕으로 해서 보장될 수 없고 환경은 시장의 힘으로 적절하게 보호하거나 증진시킬 수 없습니다(189-190항). 이윤에만 집착하는 이들이 환경의 영향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190항). 한계 없는 성장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창의적이 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192-194항). “이제 세계의 일부 지역이 불경기를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다른 지역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193항) 교황님은 모든 분야에서 더 큰 책임을 지도록 강조하시며 보조성의 원리를 인용하십니다(196항). 또한 정치에 대하여 정치가 환경 위기의 해결을 위해 명료하고 투명하게 접근하여 정치의 신뢰성을 회복하면 조직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197항).

과학과 종교의 대화. 삶은 경험과학에 의해 완벽하게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고전들은 인간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성찰할 수 있게 도와주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줍니다(199항).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위대한 동기들과 희생, 선함 등의 가치들을 망각한다면 어떠한 기술적인 해결 방안도 빈 공간을 채울 수 없게 됩니다. 믿는 이들은 자신의 신앙과 일치된 삶을 살면서 신앙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200항). “이 행성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이 자연 보호, 가난한 이들의 보호, 존중과 행제애의 관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를 서로 나누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201항) 또한 교황님은 학문들, 생태 운동들 사이의 대화를 요청하십니다. “생태 위기의 심각성은 우리 모두 공동선을 생각”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대화를 증진시킬 것을 요구 합니다(201항).

성찰을 위한 질문들:

1. 삼림 파괴; 토지 불법 점유; 수질 오염; 기후 변화; 화석 연료등. 이들은 단지 주요 뉴스거리입니까? 우리 모두 구체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천주교 사회교리가 제시하는 주제들입니까? 이 중요한 분야들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시민들의 압박이 필요하다는 교황님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바다의 사용에 관한 국제적인 협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양 자원에 대한 문제들에 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는지요? 해양자원을 통제하기 위해 초자연적 유기체를 쓰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주제에 관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환경 문제들에 대한 시민 단체들의 기여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들 시민 단체들의 활약으로 인하여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수립된 사례를 알고 계신지요?
4. 정치에 “손을 더럽히기 싫어서” 정치와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정치적인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과학은 서로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태도가 계몽주의의 유산인가요? 종교와 과학이 서로 화해할 수 없다는 개념에 종교와 과학은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6. 가난한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자신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수단과 지식이 있다면 왜 내가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일해야 합니까?

제6장. 생태 교육과 영성

요약:

제6장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전형적인 스타일로 첫 문장을 시작 하십니다: “많은 것의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류 자신이 변화 되어야 합니다.”(202항)

제1과에서(203-208항) 교황님은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개인과 그룹이 소비주의를 거부하도록 권유하고 “구매는 단순히 경제적인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을 상기 시키십니다(206항). 이어서 “지구 현장”으로 주의를 돌려 “우리 시대가 생명에 대한 새로운 경외를 일깨우고 지속 가능성을 이룩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하며,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삶의 흥겨운 축제를 위하여 노력한 때로 기억 되도록” 하자는 희망을 표현 하십니다(207항).

제2과는(209-215항) 인류와 환경이 맺은 약속에 대한 교육에 관해서입니다. 교황님은 “오늘날 문화와 생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습관으로 이어져야”(209항)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어서 환경 교육의 목표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시며 근대성의 신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우리 자신 안에서, 다른 이들과, 자연과, 다른 창조물들과, 그리고 하느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두십니다. 교황님은 “환경윤리”를 요청하고 계십니다(210항).

제3과 생태적 회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교황님은 생태영성의 필요성을 제안하십니다. 생태영성은 우리 신앙의 확신에 근거한 것이며 세상을 보호하기 위한 열정을 부양해줍니다(216항). 다시 한 번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범을 언급 하시며 피조물과 맺는 건전한 관계가 인간의 온전한 회개의 한 차원이라고 지적 하십니다(218항). 이 회개는 감사와 무상성의 태도를 수반합니다. 또 이 회개는 우리의 보편적인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인식과 모든 창조물은 어떻게 해서든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인식을 수반합니다. 교황님은 또한 사회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적 선행의 총합이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망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하십니다(219항).

제4과 기쁨과 평화에서(222-227항) 교황님은 (유대교/그리스도교 전통을 포함한) 다양한 종교 전통들로부터 배우라고 권고 하십니다: 곧 “작은 것이 많은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든 실재 앞에서 차분히 머무르는 행위는 우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완성에 이르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222항) “그리스도교 영성은 절제를 통하여 성숙해지고 적은 것으로도 행복해지는 능력을 제안 합니다.”(222항) 이는 분명히 프란치스코 성인의 관점의 메아리입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절제는 우리를 해방 시킵니다.

이는 충만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를 떨쳐 버릴 수 있게 해 줍니다. 가진 것이 없이 살지라도 짐착과 피로가 줄어듭니다. 특히 소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형제적 만남, 봉사, 음악과 미술의 능력 개발, 자연과의 만남, 기도 안에서 만족할 때 그러 합니다(223항).

제5과 사회적 사랑과 정치적 사랑에서(228-232항) 교황님은 자연을 돌보는 일은 더불어 사는 삶과 친교의 능력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의 일부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창조물, 바람과 태양과 구름에까지 확장되는 “보편적 형제애”라고 말씀 하십니다(228항). 교황님은 간절하게 청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윤리, 선, 신앙, 정직을 비웃으며 도덕적 타락의 상태에 놓여 있었 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쾌락적 피상성이 우리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회생활의 기초가 무너지면, 인간이 개인 적 이익을 지키려고 서로 다투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폭력과 잔인함이 발생 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참다운 문화의 증진이 저해 됩니다.”(229항)

제6과에서(233-237항) 성사의 표징과 주일의 휴식에 대해 논하시면서 교황님은 “성사들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자연을 받아들이시어 초자연적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수단으로 삼으시는지를 보여 주는 특권적인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교는 물질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235항). 성찬례의 우주적 특성에 관해 말씀하시며 교황님은 성찬례는 비록 초라한 제대에서 거행될 때에도 어떤 면에서는 늘 “세상의 제대”에서 거행된다고 덧붙이십니다(236항). 그리고 “주일은 유대교의 안식일처럼,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날로 지내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237항).

제7과에서(238-240항)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보나벤투라 성인의 삼위일체론적 창조론을 환기시키며 현실에서 삼위일체 구조를 알아채라고 권고하십니다. 제8과는(241-242항) 모든 피조물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우리에서 돌보는 법과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정의로운 요셉성인에 대해 말씀 하십니다.

제9과에서(243-246) 교황님은 우리의 삶을 “태양 너머” 영원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삶 속에서 “눈부시게 변모된 피조물들은 자신의 자리를 찾고, 궁극적으로 해방된 가난한 이들에게 어떤 이바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황님은 두 개의 기도: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기도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로 회칙을 마무리 하십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들:

1. 당신이 사는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 다른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 특히 프란치스칸 삶을 살기로 약속한 이들이 좀 더 단순하게 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3. 오늘 당신이 약속 할 수 있는 “생태적 회개”는 무엇입니까?